

NHN클라우드 “공공시장 공략…4년내 매출 8000억”

출범 이후 첫 기자간담회

“독립 첫째 목표달성 무난할 듯 인공지능 기술·GPU 확보 주력”

지난 4월 NHN에서 분사한 NHN클라우드가 올해 16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할 전망이다.

김동훈 NHN클라우드 공동대표(사진)는 28일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기업 출범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매출 목표가 1600억원기량이었는데 무난히 ‘플러스알파’까지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 들어 나온 공공 클라우드 사업 물량의 30% 이상을 NHN클라우드가 수주했다”고 말했다. 중장기 매출 목표도 공개했다. 김 대표는 “2026년엔 클라우드 사업으로



8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공공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4000억원 선이다. 행정안전부

의 공공 클라우드 전환 사업 예산만 2400억원에 이른다. 현재 NHN클라우드 민간 시장에서 60%, 공공 시장에서 40% 정도의 매출을 내고 있다.

이날 NHN클라우드 스태이터센터 인공지능(AI) 연구개발 △생태계 확장 △파트너 지원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2025년까지 경남 김해, 전남 순천, 광주 등에 지역 거점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일본 도쿄, 미국 LA에서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 등을 아울러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다.

AI 서비스에 필요한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하고 관련 기술도 적극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현재 NHN클라우드는 광주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GPU 팜 구축 사업을 함께하고 있다. SK텔레콤 SK스퀘어 SK하이닉스 등이 합작해 세운 토종 AI 반도체 기업 사피온과도 긴밀히 협력 중이다. 서비스형 AI(AI SaaS) 사업은 패션게임 등 기존 특화 영역을 중심으로 서비스 고도화에 나설 계획이다.

NHN클라우드는 이날 기자간담회와 별도로 ‘NHN 클라우드 메이크업’ 콘퍼런스를 열었다. 백도민 NHN클라우드 공동대표는 “컨설팅·솔루션·서비스 파트너사 300여 곳, 고객사 4000여 곳을 확보한 상태”며 “이들과 협력해 상생의 생태계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선행결자

신개념 스마트팜 선보인 록야…생산·가공·연구 한 곳서

에그테크(농업 분야 신산업) 기업 록야가 강원 춘천 본사에 천연물 소재 연구 시설인 ‘록야 스마트팜’을 설립했다고 28일 발표했다. 록야 스마트팜은 단순히 농산물만을 재배·생산하는 기존 스마트팜과 달리 생산→연구→분석→가공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이뤄지는 ‘2세대 스마트팜’이란 회사 측 설명이다.

스마트팜에선 인삼, 병풍, 감자 등을 재배한 뒤 생산된 작물을 가공해 상품화

하는 연구가 진행된다. 회사 측은 “스마트팜의 생산 시스템을 국내 농가에 보급해 생산자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지난 23일 개소식에는 김승아 켈리 대표, 김선희 매일유업 사장, 이미소 농업회사법인 발 대표 등 식품·농축산물 분야 여성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했다.

록야 스마트팜의 첫 제품은 포스트바

이오티스 유산균 제품 ‘한방에 삼’이다. 인삼에서 유래한 유산균과 스마트팜에서 재배된 새싹인삼분말이 함유됐다.

오는 10월 켈리를 비롯한 유통 채널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록야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국내산 인삼에서 유산균을 분리해내고, 관련 기술은 국내외에 기술 특허를 출원했다”며 “앞으로 분말, 음료 형태의 제품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지 기자

이른 무더위에 신소재 ‘냉전’ 골프복·이불도 ‘쿨’해야 팔린다

4조 바라보는 냉감섬유 시장

코오롱인더, 추가 증설 추진
효성티앤씨, 올 판매 두 배 늘어
메트베게·속옷 등에도 활용
BYC가 선보인 반려견용 의류 ‘개리야스’ 별칭 붙으며 ‘뿔뿔’

냉감 소재 글로벌 시장 규모



예년에 비해 무더운 여름이 예고됨에 따라 유통·패션업계가 냉감 소재를 사용한 의류 및 생활용품 마케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운동할 때는 물론이고 일상생활하는 과정에서도 땀을 빠르게 식힐 수 있는 기능성 의류와 수면 제품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냉감 소재는 에슬레저(일상복과)의 경계를 허문 스포츠웨어뿐 아니라 침구류에 이르기까지 쓰임새가 늘어나는 추세다. 효성티앤씨,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섬유업계도 냉감신소재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급성장하는 냉감 소재 시장
28일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KBV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냉감 소재 시장은 2020년 16억달러(약 2조5644억원)에서 연평균 17.3% 성장해 2026년 36억달러(약 4조627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냉감 소재 시장에서 공급이 늘어나는 수요를 쫓아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코오롱인더스트리 관계자는 “지난달 설비를 증설해 냉감 섬유 생산량을 종전의 두 배로 늘렸다”며 “시장 성장세를 반영해 추가 증설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이불 등 침



구류에 쓰이는 냉감 섬유 ‘포르페’를 개발해 지난 4월 선보였다.

효성티앤씨는 냉감 섬유 ‘아스킨’(폴리에스터)과 ‘아쿠아’(나일론) 등을 생산하고 있다. 효성티앤씨의 올해 1~5월 냉감 소재 판매량은 전년 동기과 비교해 두 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효성티앤씨는 패션 플랫폼 무신사의 자체(PB) 브랜드 ‘쿨텐다드’에 사용되는 냉감 섬유를 공급하고 있다.

◆무더위에 생산 더 늘듯
무더위 시작과 맞물려 냉감 소재가 쓰이는 제품의 생산도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기능성 소재 수요가 많은 아웃도어 업계 반응이 가장 빠르다.

K2코리아, 네파 등 아웃도어 메이커들은 울여름 판매할 냉감 의류 물량을 작년 대비 30% 이상 늘렸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냉감 소재를 활용한 의류는 통상 6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되는데 올해는 날씨가 더워 5월 중순부터 판매량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른 무더위에 K2코리아의 5월까지 냉감 팬츠 매출은 작년과 비교해 330% 불어났다.

◆늘어나는 쓰임새
냉감 소재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셔츠 속에 입는 메리야스에 쓰인 모시다. 하지만 모시의 까칠까칠한 촉감을 선호하지 않는 소비자가 많았다.

2010년대 들어 일본 유니클로가 냉감 소재를 사용한 기능성 속옷 ‘에어리움’을 내놓으면서 시장 판도가 확 바뀌었다. 폴리에스터를 활용한 냉감 의류는 모시보다 부드럽고 착용감이 좋아 점차 점유율이 높아졌다.

요즘은 다양한 냉감 소재가 실생활 전반에 사용되고 있다. 냉감 매트와 베게, 이불 등 침구류가 대표적이다. 신세계인태내셔널 ‘자주’의 지난 한 달간 냉감 메모리폼 베게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84% 증가했다.

속옷 업체 BYC는 냉감 소재를 활용한 ‘보디드라이 반려견용 쿨러닝’(사진)을 시장에 내놓기도 했다. 이 제품은 네티즌 사이에서 ‘개리야스(개+메리야스)’라는 별칭이 붙으면서 시장 확대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밖에 골프웨어 브랜드 ‘가스텔바작’은 냉감 소재와 스트레치 원단을 사용한 ‘피니쉬리안’을 선보였다. 배정철 기자

“좌석 다시 붙인다”…국제선 운항 늘리는 대한항공

코로나 전 수준의 50%까지
美·유럽 노선 다음달부터 증편
기내식·기내 물품도 다시 제공

대한항공이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라 국제선 노선 정상화에 나선다. 항공편(여객) 공급량을 두 달 내 코로나19 이전 대비 절반 수준까지 회복하고, 다음달부터 기내식과 담요 등 기내 서비스도 모두 제공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여객 노선 증편, 여객기 재 정비, 기내 서비스 정상화 등의 내용을 담은 ‘여객 조기 회복 계획’을 28일 발표했다. 7~8월 여름 성수기를 맞아 국제선 노선을 늘리고, 화물전용 여객기로 활용했던 항공기도 다시 여객기로 되돌린다.

여객 노선은 오는 9월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50% 이상으로 회복한다. 미주 노선의 경우 다음달부터 인천~뉴욕 노선은 주 7회에서 12회로, 8월부터는 주 14회 운항한다. 같은 기간 인천~워싱턴 노선과 인천~호놀룰루 노선은 주 5회에서 7회로 늘린다. 그동안 운항을 쉬었던 인천~라스베이거스 노선은 다음달부터 주 3회 운항한다. 이외 유럽(구주) 노선은 인천~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들이 김포-하네다 노선 운항 재개를 하루 앞둔 28일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여행객을 위한 포토존을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리 노선을 다음달부터 주 5회에서 7회로, 인천~방콕, 인천~싱가포르 노선은 주 10회에서 14회 등으로 증편한다.

의자를 떼어내 화물기로 개조했던 여객기는 다시 여객 사업에 투입한다. 화물 노선에 투입된 보잉777 기종 10대 중 3대를 7월부터 여객기로 전환한다. 좌석을 다시 붙이고 객실을 복원하는 작업은 항공기당 열흘가량 걸린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좌석을 떼어내지 않고 화물선

용으로 활용했던 일부 항공기는 성수기를 맞아 여객 노선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휴지했던 직원들도 돌아온다. 3개월 이상 근무공백이 있는 승무원들에게 서비스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고, 정비사를 대상으로 한 정비안전 교육도 강화한다. 회사 관계자는 “상당수가 휴업 중인 객실 승무원의 경우 여객 수요 회복 상황에 따라 신규 채용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유기농 건티슈·멸균 온천수…아기 피부에도 안심 사용”

으뜸지기

스타트업 설립
“유해물질 70여가지 무검출”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물티슈에는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방부제 성분이 들어있다. 습기가 많은 물티슈에 세균과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플라스틱 성분으로 제조되는 물티슈용 섬유에는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오염물질 같은 화학성소도 포함돼 있다.

2019년 8월 설립된 스타트업 설립은 아토피성 피부염 등 피부 질환자나 갓난아기도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유기농 건티슈(사진)와 천연

유황 온천수를 제조 판매한다. 제품 개당 가격은 8500원이다. 올해 매출은 6억원, 영업이익은 1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주은 설립 대표는 제품에 대해 “100% 유기농 순면 건티슈와 3단계 안전공정 처리를 거친 멸균 온천수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부친은 경기 양평에서 온천장을 운영했다. 이 대표는 “정기적으로 온천장을 찾는 숙박객들로부터 온천수로 목욕한 뒤 아토피가 치료됐다는 이야기가 듣고 온천수를 이용한 제품을 개발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했다.

미국 퍼듀대 출신으로 국내 대기업에서 국제무역을 담당했던 이 대표는 창업을 결심하고 온천수에 대한 성분검사를

했다. KC피부과학임상센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제화장품원료인증기관 등 검사 기관은 온천수의 아토피 치료 효과, 보습·각질 제거 효과, 가려움증 완화 효과 등을 인정했다.

그는 이후 국제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100% 천연 유기농 순면으로 만든 건티슈를 5층 멤브레인 정수 처리, 24시간 자외선(UV) 살균, 고온 살균 처리를 거친 천연 유황 온천수와 패키지로 묶어 제품으로 출시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검사 결과 스테로이드 성분 39종, 알러지 유발 물질 26종, 파라벤 7종 등 피부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모두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이 대표는 “수돗물보다 자극이 적은 까닭에 수유패드, 아기용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원 기자

100만 고객이 선택한 건강기능식품
100
100만 고객 선택 건강기능식품
100만 고객 선택 건강기능식품

대사 케어를 위한 프리미엄 카테킨 멀티팩

지금의 식습관으로
100세까지 관창을까요?
체지방과 콜레스테롤 개선으로 100세까지 활력있게!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골드

건강기능식품
녹차추출물, 복합비타민미네랄
1.56g [520mg x 3정]

100세 시대에 건강을 지키려면
무엇보다 올바른 식이 관리와 대사 건강이 중요합니다

메타그린 골드는 아모레퍼시픽의
70년 독자 연구 노하우가 담긴 카테킨으로
체지방과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식이 영양 대사를 위한 비타민 미네랄 6종이 함유되어
매일 건강하고 탄탄한 대사 관리를 완성합니다
이제, 100만 고객이 선택한 프리미엄 대사건강기능식품
메타그린 골드를 만나보세요

적절한 식이조절과 운동을 병행하여 섭취하는 것을 권합니다
제조원: (주) 아모레퍼시픽 유통전문판매원: (주) 아모레퍼시픽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품상담 | 080-023-5454
구매문의 |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바이탈뷰티